

정길상(부산상고 53회 동기) 1차 구술

1. 구술자: 정길상
2. 면담자: 강희영
3. 촬영자: 이대희
4. 구술일자: 2011년 8월 31일
5. 구술장소: 부산 금정구 구술자 사무실
6. 구술분량: 05분 21초 / 일부 공개
7. 주요내용: 첫 직장과 사법시험 준비 시절의 면모

면담자 : 근데 그 농협, 농협시험 떨어지셨잖아요?

구술자 : 네, 그때가 이(2)월 십구(19)일 날이던가, 그렇게 기억이 지금 납니다. 그때 이(2)월 십구(19)일이 내 생일이거든요. 그걸, 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. 어디서 시험을 쳤느냐하면 동아대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. 지금은 동아대학교 옮겼죠. 옮겼는데 전에는 대신동에 있을 땐니다. 우리 친구들이 골로(그 곳으로) 갔어요. 갔는데, 시험을 치. 이제 시험 치러 들어가면 한 십(10)분 되면 바로 나와요, 근데. ‘어떻게 이리 빨리 나오느냐,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’ 이리 물었더니 ‘이게 시험도 아니다’ 이거야.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 그보다 더 쉽다는 거지요. ‘암만해도 전국에서 내가 톱(top)하다 싶으다, 이걸 시험지도 아니다. 이걸 문제도 아니다’ 그랬다 이 말이죠. 그런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. ‘근데 네(너) 시험 그렇게 잘 쳤는데 왜 그렇게 떨어졌냐?’ ‘나도 모르겠다.’ 떨어졌습니다. 그렇게 떨어지고 부산에 초음에 어린이대공원 있는 그 초음에 그때 삼해어망¹⁾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일단은 취직을 했어요.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고등학교는 졸업했고. 그래서 삼해어망에서도 얼마 안 있었습니다. 한 일(1)년 남짓 있었나. 제 기억으로 오래 안 있었습니다. 오래 안 있고. 고서(거기서) 그만 둘 때에도 음 전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. ‘지금 경리과 이거 좀 제도를 바꿈시다. 바꾸며는 이만한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.’ 어. ‘근데 이 숫자는 많고 능력은 안 오르고. 이걸 아니다. 그러니까 내한테 시간을 좀 주며는 이거 내 제대로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.’ 그게 가능합니까? 이제 막 고등학교 나

1) 정식명칭은 (주)삼해공업으로 어망제조 회사이다

왔는데. 전무가 그 말 들겠습니까?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. 그러며는 내 그만두겠습니다. 그러면 내 그만두겠습니다, 이래가지고 그만뒀습니다. 그래가지고 인제 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울산 삼(3)비, 삼(3)비료공장 세울 때 한참 공사할 때 거(거기) 갔지요. 그건 뭐 완전 노무자 일한 거 아닙니까? 우선, 우선 돈을 벌어야 책을 사니까. 책이 있어야 공부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중에 다쳤지요. 다쳐가지고 이빨 이거 뭐 뿌러지고 만신창이가 됐지요. 그래서 그 일도 하다 못하고 울산에서 나왔지요. 나와 가지고 제가 뛰쳐날아간 겁니다.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. 만나가지고 고시공부를 해요. 첫 시발점이요, 서면 로타립니다. 지금은 신호대로 돼있지요, 그죠? 로타리가. 신호덴데. 그때는 완전히 로타립니다. 예예예 로타리입니다.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청학서림. 내가 지금 기억으로는 청학서림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라고 그 서점이 서너대(3~5)개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이 납니다. 거기서 이제 서점에서 이자 책을 펴내 가지고 꼭 그걸 뭐 ‘고시공부를, 이걸 외워야 되겠다. 지금부터다, 이 시간부터다’ 카고(하고) 어데 봤겠습니까? 그러나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거기 있었고 네, 중요한 것은 ‘내가 꼭 필요한 책이다, 고시 공부하는데 이 책은 있어야 된다’ 그렇게 생각했던 책이겠죠. 거기서 보고. 그래서 그걸 본 겁니다. 몇 쪽 넘기다 보면 우리가 소설책을 뭐 어떤 책을 보더라도 마음에 와 딱 닿는 게 있잖습니까? 예 고(그런) 분야겠지요. 그래 고걸(그걸) 보다가 오랫동안 보면 또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른 서점에 가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또 보고.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다 돌으면서 고걸 내 다 본 걸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집에 갔어요. 우리 집을.

■ 구술자 주요이력

1947. 경남 함양 출생

1966.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

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53회 동기로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.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알고 있었던 노 대통령을 호기심에 담배 피우는 과정에서 첫 대면했다고 한다. 졸업 이후 사법시험 준비기나 군대 시절에도 서로 소식을 전

하며 친분을 유지했다. 정치 입문 이후에는 친구로서 선거운동을 도왔다.